



**Slow Food**  
**2024.05**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두에게

# slow food

LETTER | COLUMN | REPORT | ARK OF TASTE | PEOPLE | CONVIVIUM



© Rodrigo Flores on Unsplash



슬로푸드 소식을 모아 전하는 '슬로푸드' 섹션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와 「슬로매거진달팽이」가 함께합니다. 우리나라 슬로푸드운동의 현장은 물론 국제슬로푸드협회의 여러 가지 소식과 슬로푸드를 실천하는 이들의 라이프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아우르며, 매달 다양한 슬로푸드 뉴스, 인물 인터뷰, 활동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www.slowfood.or.kr](http://www.slowfood.or.kr) 문의 02-737-1665



# 22대 국회, 민생 걱정은 말이 아닌 입법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4월 10일이었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떤 후보에게 어떤 기대를 하며 투표하셨는지요.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모든 이슈가 선거라는 거대한 태풍에 휩싸여 빨려 들어가듯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관심이 많고 뜨거웠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마한 후보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흠결이 많은 상대방보다는 자신이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겠다고, 자신에게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호소했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견디기 힘든 소음과도 같았지만, 유권자인 우리는 각자가 세운 기준에 따라 투표했고, 그 결과로 누군가는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세 기간 수많은 약속을 쏟아냈고 국민을 위해서 일꾼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특히 많은 이슈가 등장했고 선택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대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고 물가동향을 파악하겠다고 마트에 가서는 파 가격을 보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농림식품부 장관 등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최고 결정권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파가 얼마에 팔리고 있고,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파'라는 식재료 하나의 가격을 몰랐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불만과 실망이 분노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먹을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 3만 불 시대,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소득 수준과 달리 우리 국민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품은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회적 안전망 없는 우리 사회

공동체에서 극한의 경쟁에 내몰려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로 인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운 사회에서 모두가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대변하는 지표가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럽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말대로 파 한 단 가격 875원이 합리적이라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지요. 파가 밭에서 마트를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도 거의 파탄지경에 이른 농업 현실에 더해 파를 875원에 팔아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어떤 삶보다도 가혹하고 참담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 입성한 모든 당선자가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슬로푸드한국협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5대 민생법안인 먹거리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농어민 기본 소득법, 학교급식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 등의 입법을 요구하였습니다. 민생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민생 5대 법안을 입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민생 5대 법안 입법화를 요구합니다. ●

다시 시작되는 봄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강현경**에게

## 슬로푸드운동과 식량권 법제화

사람은 누구나 생존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식량권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식량권 또는 '먹을거리 기본권'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하는 사회에서 경제적 약자인 취약계층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은 44.4%이며,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9%에 불과합니다. 5대 민생법안인 먹거리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농어민 기본 소득법, 학교급식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 등의 입법이 절실합니다.

글 김종덕(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장) 사진 정한아(프리랜서)

### 식량권 보장과 실행은 국가의 의무

모든 사람이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슬로푸드운동에서는 식량권을 매우 중시합니다. 식량권은 1948년 국제연합(UN)의 인권 선언에서 공표된 기본 인권이며,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기에 국가가 나서서 보장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엔에서 식량권을 넘어 식량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1966년 제안되어 1976년 발효된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년 발효) 11조 1·2항입니다. 이 국제규약에서 “국가는 기아에서 벗어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개별적 국제협력을 통해 필요한 특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가가 개인이 기아에서 벗어나는 식량권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천해 개인의 식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이 식량권의 권리 보유자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장하는 실체이므로 식량권과 관련하여 국가의 의무로 다음 3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 존중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식량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보호입니다. 국가는 적절한 식량 접근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충족입니다. 국가는 개인이 적절한 식량을 가지지 못할 때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적절한 식량이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진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 저하, 대출이율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액 증가, 그에 따른 가계 실

질소득 감소, 예그 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사람이 사는 데 가장 기본인 식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농산물로 만든 패스트푸드, 초가공식품 의존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경제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 등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도 전면 개편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퇴보는 정책 수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농산물을 공급하던 농민들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 식량 시스템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가 나서야

우리나라 헌법에 식량권, 식량권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식생활 질 저하, 국가의 낮은 식량자급률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2대 국회는 식량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고, 차기 헌법 개정 때 식량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국민의 식량권, 그리고 식량권의 국가 보장을 헌법과 하위법에 명시하는 일은 국민이 음식 같지 않은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며, 국가 차원에서 농업과 어업의 활성화, 식량자급률을 제고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

# 마을 어장, 어민들의 삶이자 어촌문화의 모태

글·사진 김준(슬로푸드한국협회 이사, 슬로피시운동본부장)



서해부터 남해까지 관통하는 어촌마을 공유자원으로 마을 어장을 꼽을 수 있다. 마을 어장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마을어업’이라고 부른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에 근거해 허가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 수산업법에는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마을어업을 면허한다고 규정한다.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차이는 구성원과 활동 범위가 마을에 국한하는지, 시나 군까지 경계가 확대되는지로 구분한다. 마을 어장에서 가장 많이 양식하는 품종은 바지락이다.

어촌은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다. 우리 어촌은 지형, 환경, 경제로 볼 때 반농반어가 특징이다. 순수한 어촌으로는 생활이나 생존하기 어려운 자연과 사회환경이다. 주민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어업’이라는 생계와 생활공간인 ‘마을’이라는 커뮤니티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마을 어장이다.

1 바지락 양식장으로 나가는 서해의 한 어촌 주민들

2 갯벌 체험이나 어장 체험은 허가된 유어장에서만 가능하다. 반드시 어촌계를 통해 지역 어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 체험 유어장(양식장) 안내

여기서부터는 응도어촌계(응도어촌  
체험·휴양마을) 체험 유어장입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어떠한  
무단채취를 금지합니다.

• 지정번호: 제 2016-1호

- 서산시 응도어촌계장 -  
(문의: 041-666-0997)

양식장 구역도

**김준 박사는...** 한국 슬로피시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섬진흥원 이사이자 슬로푸드 한국협회 이사다. 어촌사회를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속 가능한 어촌과 어업, 주민이 행복한 섬마을과 지속 가능한 섬살이에 관심이 많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섬, 어촌, 갯벌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다 퇴직했다. 지금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수행하며 섬과 갯벌을 답사한다. 쓴 책으로 『섬살이』 『섬문화답사기』 시리즈, 『어촌사회학』 『바다맛기행』 시리즈, 『어떤 소금을 먹을까』 『물고기야 왜?』 『바닷마을인문학』 『바다인문학』 『섬살이섬밥상』 등이 있다.



해조류 양식을 하는 서남해안 한 어촌의 마을 어장

먼저 어업을 보자. 어업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수산업과 다른 위상을 갖는다. 수산업은 ‘수산자원을 채취·양식·가공하여 인류의 생활에 이용하는 산업’으로 정의한다. 어업, 양식업, 제조업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법으로 살펴보면 어업은 수산업에 포함된 협의의 개념이다. 우리 어업은 마을어업에서 출발했다. 마을 어장으로 불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이다. 마을 어장은 마을에 해당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바다(갯벌)를 구분했다. 마을마다 조금씩 힘의 차이가 있어 관행을 벗어나 다른 어촌 옆에 있는 바다까지 차지하기도 했다. 1960년대 수산업법 제정과 어촌계 등장 이후 좀 더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다. 명확하게 시대를 구분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1990년대 초반까지 수산업 중심은 마을어업이었다. 이후 수산업에서 대규모 양식어업과 가공업 영역이 커지면서 마을에 기반을 둔 어업은 급격하게 쇠퇴했다. 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연안 오염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수산정책과 어업정책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위상도 차이가 있다. 최근 어촌뉴딜, 어촌신활력사업 등 어촌을 활성화하겠다는 사업은 취지와 달리 사업 내용이나 형식이 공동체나 공유자원에 기반한 어촌정책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규모 굴 양식을 하는 남해지역 양식장

다음은 어민의 생활공간인 커뮤니티를 생각해보자. 마을 어장이 생업 공간이라면 마을은 생활공간이다. 어촌은 이 둘이 결합한 커뮤니티다. 그런데 요즘 어업정책이나 귀촌정책은 이 둘을 별개로 혹은 무시한 채 추진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진입장벽'이라는 용어의 등장이다. 귀촌 특히, 귀어할 때 가입금이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어촌이 있다. 농촌도 사정은 비슷하다. 어촌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입장벽 탓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어촌으로 귀촌하려는 사람들은 수산업이 아니라 간단한 어업 즉 맨손어업 정도면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과 역대 소득을 기대하며 귀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해당 부처에서도 진입장벽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사용한다. 사실은 어촌의 특성상 마을 어장을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어촌 문화의 한 부분이다. 한정된 자원을 마을주민들이 나누어 사용했던 70년대, 80년대의 마을 어장 관리 방식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마을 어장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곳은 구성원 자격을 둘러싼 규칙이 막강하다. 어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어촌사회 구성원 자격을 둘러싼 규정들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촌사회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단죄하는 것은 어촌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하물며 '진입장벽'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어민과 귀어인이든 귀촌인이든 어촌 커뮤니티에서 더불어 살아갈 방법이 정책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촌질서도 어촌인구 고령화, 마을어업의 경제성 저하, 귀촌인 증가 등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어촌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논을 지키는 수호자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김석순 이사장  
“탄소 잡고, 생태계 지키고, 식량주권  
보장하는 논은 최고의 인공 습지입니다”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은 논이 가진 생물 다양성을 조사하고 논 생태계 교육과 먹거리 교육, 생물 다양성을 살리는 논 농업 확대를 추진하는 등 논을 생태학적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600여 종의 생물이 사는 논은 인공 습지로, 하천이나 자연 습지 못지않게 다양한 생명체의 서식지 역할을 한다. 이런 논이 가치를 주목한 사람들이 모인 16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2006년에 ‘한국논습지네트워크’를 결성했고, 논 생태 조사를 시작했다. 2년간 조사한 결과물이 2008년 우리나라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총회’ 때 빛을 발해 ‘논습지결의안’이 채택되었다. 2019년에는 한살림에서 독립해 본격적으로 논을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김석순 이사장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터뷰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고지현, 논살림 활동가



습지인 논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5%였으나 도시화·산업화와 함께 논이 밭으로 변해 현재 논 면적은 5%까지 줄어들었다. 면적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제초제와 화학비료가 살포되는 관행 논이 많아 생태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관행 재배방식의 농업에서 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유기농업으로 바뀌려면 농업환경보전사업처럼 국가가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해야 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마을에는 보조금과 함께 생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이들이 논 생태체험을 하고 나면 환경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밥 한 그릇의 가치를 마음으로 느끼고 밥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서울지역 어린이집과 학교 100여 기관에 벼를 키울 수 있는 논 상자를 설치해 법씨를 뿌리는 것부터 수확까지 직접 체험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및 경기도 친환경 논에서 몇 년간 유아, 초등생, 가족 단위 논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논생물 다양성 조사, 도봉구청과 함께 하는 벼농사 체험, 시민과학콘퍼런스 등으로 논이 가진 생태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다. 논으로 생태계를 지키자는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은 그래서 징검다리다.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환경과 농업을 이어주는 디딤돌이다.

**Q 텃밭에 비해 텃논은 좀 생소합니다. 텃논은 왜 중요한가요?**

일반 사람들에게 벼는 뭘까요? 황금별판의 벼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벼가 자라는 논을 어떻게 여길까요? 대부분 논과 벼, 쌀, 밥 그리고 다양한 생태계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마트에서 쌀을 사먹습니다. 내가 먹는 밥 한 그릇에 수많은 사람과 자연의 손길이 깃들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조차 못 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도시에서 이런 순환고리를 이어줄 방법이 무엇인지 궁리하다 도시 논을 만들어 논 체험을 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논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즐거운 놀이와 교육이 이뤄지며, 전통문화를 경험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에 착안했죠.

논은 벼가 자라는 동안 물을 담고 있습니다. 제초제나 농약을 사용하는 대신 우리 조상이 했던 것처럼 자연을 살리는 방식으로 벼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생태 환경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논에서 벼를 키우고 소비자가 그 쌀을 찾고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환경을 살리는 순환농업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생산자인 농부와 소비자가 함께 농업생태 환경의 순환이 이뤄지는 쌀소비를 하면 이 지구에서 먹을거리와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논은 벼만 재배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며, 물을 저장하는 댐이면서, 지하수 저장공장입니다. 홍수에 거침없이 떠내려가는 토양을 보존하고 우리의 공동체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논을 지키기만 한다면 건강한 생태계가 살아나고 우리 식량주권도 지킬 수 있어요. 쌀이 이토록 소중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논살림 활동을 하고 있어요.



1 법씨 모판 심기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함께  
2 법씨를 모판에 흩뿌리는 모습  
3 토종 법씨 모판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



1



2



3



4



5

1 무수골 논 전경 2 무수골에서 모내기 체험 행사하는 주민과 아이들  
3 모판에 심은 법씨에서 싹이 난 모습 4 어린이대공원 후문에 마련된 도시 텃밭, 체험단 학생들이 논독을 따라 걷고 있다. 5 어린이집 교육용 상자  
논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라 튼튼하지만 무겁다. 상자 논 교육에 필요한 상자는 미리 수거해 세척하고 점검한 후 교육장으로 보낸다.

### Q 논학교의 무대인 ‘무수골’은 어떤 곳인가요?

도봉구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무수골은 이석현 농부가 직접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세종대왕 아들인 영해군의 자손들로, 500여 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수골에는 3천여 평의 농지가 있는데, 그중 2천여 평이 논입니다. 무수천 물을 논에 대어 농사짓는데, 논 속 유기물은 벼들이 양분으로 흡수하고, 논물은 벼의 정수작용으로 정수되어 다시 무수천으로 보냅니다. 이석현 농부가 처음부터 친환경농업을 하진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 수십 번 찾아가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생태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한 끝에 농법을 바꾸셨어요.

### Q 무수골 논학교에서는 어떤 체험을 하나요?

도시에서 가까운 무수골 논에는 근처 어린이집, 학교, 도시인들이 논 체험을 하러고 찾아옵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논 체험 공간을 확대해 더욱 본격적으로 합니다. 매월 체험이 있는데 4월에는 법씨 파종, 5월에는 모내기, 6~7월에는 논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8월에는 벼꽃 관찰과 허수아비 만들기를 합니다. 벼꽃이 피면 알곡이 차오르고 새들은 맛있는 알곡을 먹으러 논으로 모여들거든요. 그럼 우리는 허수아비를 만들어야겠죠? 농사지는 벼가 다 새의 먹이가 되게 둘 수는 없잖아요. 논에는 거미가 많이 삽니다. 이른 아침 이슬 머금은 거미줄이 많이 보인다면, 그곳엔 수많은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거미가 많으면, 농부는 알곡을 지켜주는 든든한 일꾼을 얻은 거랍니다. 9월에 점점 알곡이 익어가고 논이 황금벌판이 되면 육상 곤충 관찰과 체험을 합니다. 벼메뚜기와 잠자리 등을 보면 아이들은 너무나 재미있어 채집망을 들고 논둑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황금벌판이 된 논에서 벼 베기 추수 체험으로 일 년 농사를 마무리합니다. 계절마다 논은 벼가 자라는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고, 추수 끝난 논바닥은 벗짚 놀이에 최상입니다. 겨울 논에서 아이들이 썰매 타는 모습은 지나가는 등산객에게도 추억을 선사하지요.

### Q 1년간 논의 변화를 보면 다양한 것을 느낄 것 같아요.

1년 내내 어느 한 계절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아요. 논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어주면 사람들은 와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상자 논은 직접 논에 가지 않더라도 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은 논입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논 생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는데, 지난해 100여 기관의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논학교가 이뤄졌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도시 텃논은 대공원 후면에 있어요. 아이들과 가족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기에 작은 텃논을 만들어 논 생태체험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어른들은 논을 바라만 봐도 맘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모내기 하고 한 달여는 벼가 분얼하는데요. 분얼하는 중에는 논물이 거울이 되어 하늘빛과 주변 모습을 비추면서 물에 비친 풍광이 마음을 어루만져요. 더구나 6, 7개월 만에 1m 가까이 자라는 벼는 광합성을 하며 탄소는 흡수하고 산소를 내어주니 논 주변에 가면 공기가 시원합니다. 벼가 자라면서 탄소 저감에도 많은 역할을 한다니 이보다 고마운 식물이 있을까요?

### Q 논학교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을 실제로 보면 어떠세요?

강동구 상일동, 암사동, 일자산도시농업공원에 도시 텃논을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논 생태체험을 하는 논학교를 격주로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거나 산만했던 아이들도 세 번째 수업할 때쯤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모내기 하는 날 논에 도롱뇽 유생이 많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손 모내기하러 논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롱뇽을 밟을까봐 못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은 논에 사는 생물이 징그러운 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고, 우리와 다르게 생겼을 뿐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든요. 도롱뇽이 스스로 피할 테니 안심하라고 했더니 그제야 들어가 즐겁게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모를 심고 논 생물을 관찰하고, 자기 손과 몸으로 벼 키재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직업으로 연결해보기도 합니다. 허수아비를 세우는 9월경 토종 벼 중에는 키가 150cm를 넘는 품종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를 쫓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수아비를 세우며 자신들보다 큰 벼의 키에 깜짝 놀라며 즐거워합니다. 추수 체험까지 마치면 아이들의 얼굴에는 모내기부터 시작해 내내 관찰했던 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나고 흐뭇함이 넘쳐요.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꿈이 생기면서 미래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요. 드론 조종, 농업기계 제작, 벼씨 연구, 종자 연구, 토양 연구, 사진가, 작가 등등 자신이 생각한 미래를 카드에 적으면서 꿈꾸는 거예요. 하지만 논학교 체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지속가능성입니다. 인간만 좋은 게 아니라 논 주변에 사는 생명 모두 살릴 수 있는 자연농법, 친환경 농법을 위한 방향을 생각해보고 소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교육하지요.

### Q 슬로푸드 회원이 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쌀을 사는 소비자가 자연농법으로 기른 쌀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한다면 농부는 기꺼이 그런 벼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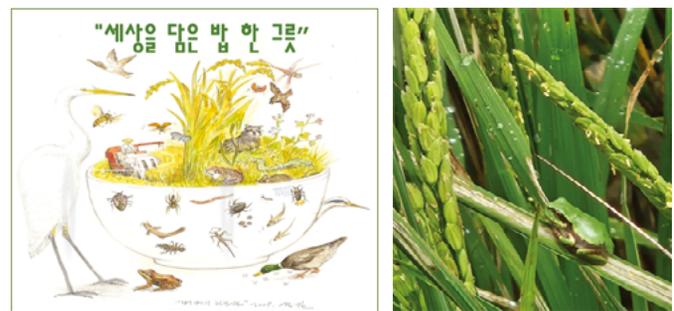
않기에 정부는 반드시 농업생태환경을 지키는 정책과 지원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이야기까지 마음에 와닿게 풀어내는 일이 필요한데, 도시 텃논, 상자 논을 통해 논학교를 체험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걸립니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농업생태환경을 지키는 활동이 결국 논살림입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을 지켜가는 슬로푸드와 논살림은 같은 지향점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올해부터 함께, 즐겁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 ● 논살림협동조합

사무실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4당 27 306호

문의 02-6233-0070

이메일 paddyfieldco@naver.com



어떻게 밥이 올챙이 280마리를 살릴 수 있을까?

@4,800 | @4,850 |

커피 한 잔 값으로 밥을 먹고 = 8일 동안 밥을 먹고 = 0.8평 논을 지킬 수 있고 = 올챙이 280마리를 살릴 수 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쌀 1킬로를 산다면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쌀 소비는 1인당 100g이 안 됩니다. 밥은 하루 한 끼 반 정도에도 못 미치게 소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를 겨우 넘기고, 그나마 쌀 자급률이 90%가 넘어 식량 자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밥 한 그릇을 먹으면 올챙이 35마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점점 날씨 변화는 급격하게 오동치고, 생물 또한 빠르게 멸종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시죠? 논살림은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에 담긴 논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책으로 읽는 슬로푸드 ⑤ 『꿈의 도시, 꾸리찌바』

#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사는 곳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글 김용수(전북 고창지부, 고창백옥스 '꾼' 대표) 사진 Unsplash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대도시나 중소도시 또는 지방의 한적한 마을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사람 사는 것에 따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망을 잔뜩 품고 채움의 만족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람과 자연이라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만이 있는 세상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과 사람만이 있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지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고품층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사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급하게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걸어서 일터로 가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이동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동 수단 안은 어떻습니까? 버스 혹은 지하철, 자가용이나 택시도 더러 있겠군요. 일터에서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인디밴드 피터아저씨 김산의 노래 '내 이름을 잊었네'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나의 자화상 아닌지요?

우리가 즐겁지 않은 이유는 과도한 인구 밀집, 끝 모를 생존경쟁, 배출을 미덕으로 삼는 화려한 소비도시의 이면, 환경재앙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유발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지요. 자본주의 탓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은 탓입니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지 않고 당장 앞만 보고 하는 탓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를 맞았습니다. 22세기에는 어떨까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으로 물러가게 될까요?

브라질의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이나 광주 정도 되는 도시에서도 이런 고민은 같았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아래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 인구밀도가 2배 정도 높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가 더욱 많았습니다. 환경조건에 더불어 어려운 경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지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더욱 절망하게 마련입니다.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도시를 '꿈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꾸리찌바'입니다.

『꿈의 도시, 꾸리찌바』는 2001년 대안운동가 박용남 선생이 지은 책입니다. 벌써 23년이나 되었네요. 23년 전에 이미 많은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박용남 선생은 이 책에서 '식민지 도시에서 현명한 도시로' 옮겨간 꾸리찌바를 소개하면서 생태도시로의 이행, 도시교통과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창조적 노력,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실험, 꾸리찌바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차분하게 말해줍니다.

슬로푸드를 지향하는 우리 회원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나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슬로푸드를 지향한다는 것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삶이지요. 몸 전체로 부딪치며 살아내는 온전한 삶이지요. 그러려면 나와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슬로푸드의 운동성에 더욱 다양하고 창조적인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 뒤에 실린 짧은 서평 몇 개를 덧붙였습니다.

*돈보다 앞서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 시민을 존중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 꾸리찌바의 창조적 행정이 생태도시로의 기적을 일궈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 책은 그동안 지하철, 고속도로의 건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시의 발전이라고 믿어온 우리들을 멈추어 서서 되돌아보게 만들어준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계획가들을 위한 읽을거리로 훌륭하다. [중앙일보]*

*남미 변방의 도시, 브라질의 꾸리찌바는 국제사회에서 '꿈의 생태도시'로 불리곤 한다. '타임'은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사는 도시"로 선정했고, 로마클럽은 "희망의 도시"라고 명명했다. 개발도상국의 인구 160만 명 도시이지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미래도시의 상을 현실에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



『꿈의 도시, 꾸리찌바』 표지(박용남 지음, 녹색평론사 펴냄)

# 슬로푸드 생산자를 만나보세요!

알싸한 갓김치와 쪽파김치에 막걸리 한 사발을 먹고 봄바람을 즐기면 세상 근심이 사라질 것 같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슬로푸드회원의 날' 맛본 최후경 회원의 갓김치 맛이 일품이라며 판매처를 묻는 회원이 많았다.  
 이번 '슬로푸드 온'에 소개하니 갓김치가 생각나면 최후경 회원에게 주문하자.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최후경 회원 제공



갓을 재배하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최후경 회원

## 김치 세프 최후경 회원의 돌산갓김치와 쪽파김치

전남 여수 최후경 회원은 제30회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녀는 양념보다는 신선한 재료가 우선이라는 철학에 손맛을 더해 갓김치를 담근다. 밭에서 직접 재배한 돌산갓과 쪽파가 김치의 기본이다. 여수 돌산갓은 특유의 향과 특 쏘는 맛이 일품이다. 잎이 넓고 줄기가 굵어 김치를 담았을 때 쉬 무르지 않는다. 여기에 직접 담근 멸치젓, 새우젓을 넣어 감칠맛과 구수함까지 더한다. 노지해풍 쪽파김치 역시 해풍을 맛고 자란 쪽파로 담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입에 남는다.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소금'도 빼놓을 수 없는데 3년 간수 빠진 소금을 사용해 짜지 않은 단맛이 있다. 건멸치, 건새우, 다시마, 북어대가리, 표고버섯, 대파, 무 등을 넣고 끓인 육수도 들어가니 어찌 맛있지 않겠는가. 미리 주문하면 김치를 담가 바로 보내니 집에서 엄마가 바로 만들어주신 듯한 김치맛을 맛볼 수 있다.●



● 식후경돌산갓김치  
 네이버스토어 [smartstore.naver.com/sickhg](http://smartstore.naver.com/sickhg)  
 문의 및 직접 주문 010-6633-4172  
 위치 전남 여수시 신기남4길11

- 1. 해풍돌산갓김치**  
 2kg 24,000~20,000원(택배비 3000원)  
 3kg 35,000~30,000원(택배비 3000원)  
 5kg 55,000~50,000원(택배비 무료)
- 2. 배추김치**  
 4kg 30,000원(택배비 3000원)  
 5kg 40,000원(택배비 3000원)  
 10kg 80,000원(택배비 무료)
- 3. 해풍쪽파김치**  
 2kg 30,000원(택배비 3000원)  
 3kg 45,000원(택배비 3000원)  
 4kg 60,000원(택배비 무료)

# 슬로푸드 파주지부 + 공릉천 친구들 파주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2024년 3월 시작된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라는 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해 경기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공릉천이 경기도 북부 도민과 자연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글 김찬우(공릉천 친구들 사무국장) 사진 공릉천친구들

## 공릉천의 생태 가치

청원은 공릉천 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는 것이다. 공릉천은 서해안 조수간만의 차이로 서해 바닷물이 김포와 강화를 지나 들어오는 곳으로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역 지역이다. 또한 민통선이 인접해 역설적으로 개발에 비껴가, 자연 하천의 모습을 100년간 유지해왔다. 멸종위기종이



며 천연기념물인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기수역 지역에서만 자라는 새섬매자기, 멸종위기종인 개리가 산다. 한반도를 찾는 겨울 철새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이다. 저어새, 재두루미, 큰기러기, 뜸부기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을 볼 수 있다.

## ‘공릉천친구들’을 조직하고 대동단결

한강유역환경청이 공릉천 하구를 정비한다며 공릉천 독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가로 2.5m, 깊이 2.5m의 콘크리트 U자 배수로, 일명 죽음의 수로를 만들었다. 동물들이 빠지면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구조이며, 사람도 위험하다. 독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 공릉천과 눈을 만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을 동강내려 했다. 이에 파주시민을 중심으로 공릉천 좌우 농경지를 지키기 위해 ‘공릉천친구들’을 조직했다. 그리고 공릉천 하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시민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했다. 한국 내셔널트러스트가 진행하는 올해의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을 선정하는 보전 운동 ‘이곳만은 지키자’에 ‘공릉천 하구와 좌우 농경지’를 응모하여 대상을 받았다. 더 나아가 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전하고자

경기도민 청원을 진행했다.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와 해수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06년 4월 17일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공릉천 하구도 지정하려 했으나, 파주시가 “잘 보전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람에 지정하지 않았다. 현재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진행한 것이다.

## 정밀 조사보고서가 제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3월 11일 경기도지사는 청원에 대해 “공릉천 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를 위해 전국 내륙습지조사 지침에 따라 ‘앞으로 1년간 12개 항목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한 ‘환경부, 국방부,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습지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골고루 수렴하겠다’고 했다. 도지사가 직접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드시 조사 지침에 따른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그 과정을 따라야 한다면 제대로 진행되도록 시민들이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릉천 하구’를 사랑하는 시민과학자, 시민, 학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자료와 활동 내용을 기관에 계속 제공해서 조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게 해야 한다. ●

# 오늘도 우리는 슬로푸드

봄이 무르익고 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일을 차근차근히 해내고 있는 회원들의 모습을 보며 슬로푸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길 바라본다. 이번 호는 작은 시냇물 같은 활동이 큰 강의 물줄기로 흘러갈 회원들의 활동을 다양하게 소개한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각 지부 및 회원 제공



내포지부 회원들

## 01 내포지부, 토종 씨앗 나눔 행사

슬로푸드 내포지부와 토종씨앗박물관이 함께 '토종 씨앗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봄이면 토종 씨앗을 나눴는데 올해는 토종 벼 전시와 벼를 주제로 한 씨앗 나눔도 했다. 토종 법씨를 받은 회원들은 각자의 논에서 올 한 해 토종 벼를 잘 키워내 올가을 맛있는 토종 벼를 밥상에 올리고 씨앗 값음도 할 예정이다.



'거창담다'가 마련한 장터 모습



회원들이 가져온 나물과 고추장으로 비빔밥을 만들었다.

## 02 담양 예비지부, 두 번째 슬로푸드 체험 여행

3월 30일 담양 예비지부에서는 '슬로푸드 담양에 담다'라는 주제로 지부 모임을 했다. 나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농산물을 활용해 슬로푸드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자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모임에는 쌀엿 명인 강순임 씨가 강사로 초청되었다. 광경자 예비 지부장은 여타 고추장 담기 행사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을 보완해서 모임의 완성도를 높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노련한 주부라 고추장 담그기에 몰입해 찹쌀 초정 고추장을 만들고, 고추장과 찰떡궁합인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며 모임을 마무리했다. 이번 모임은 두 번째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회원들의 참여 열기와 협조가 느껴진다.



모임에 참석한 지부 회원들

## 03 거창, 수송대 발효마을 '2024 통일장 담기 축제' 개최

3월 23일과 24일 이틀간 거창 수송대발효마을에서 '2024년 통일장 담기 축제'가 열렸다. 간장포럼과 로컬푸드 '거창담다'에서 주관하고 우리 협회가 후원한 이번 장 담기에는 한민족의 장독대 문화에 대한 강의와 거창의 향토 음식을 맛보는 워크숍, 정희창 작가의 용기 제작 시연 및 소원솟대 만들기 등 체험 활동이 펼쳐졌다. 장터에서는 '거창담다'에서 준비한 된장, 간장, 술, 거창 농산물을 한자리에서 맛보고 살 수 있었다.



강대욱 농부의 책『사과농부 강대욱의 제철밥상』

## 04 거창, 강대욱 회원『사과농부 강대욱의 제철밥상』출간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내 지역 농산물로 직접 조리해 블로그에 레시피를 올려 온 강대욱 농부. 그가 올린 1000여 가지 레시피 가운데 일부를 담은 책이 출간됐다. 반조리식이나 밀키트가 범람하는 시대에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간단하고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지역 농민과 도시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5월에는 두릅, 엄나무순, 취나물, 고사리, 더덕, 도라지, 죽순, 상추, 썩갯, 마늘줄, 주꾸미, 소라, 갑오징어, 꽃게, 키조개, 참다랑어, 꿀뚜기, 재첩, 맹어, 밴댕이 등이 제철 식재료이다. 장을 볼 때 눈에 띄면 꼭 식탁에 올려보실 것을 추천한다.



2019년 테라마드레에서 다금바리로 맛워크숍을 하는 강창건 셰프

## 05 제주, 강창건 셰프의 '진미명가', '백년가게' 선정

‘2019 슬로피시 축제’에 초청받아 생선의 모든 부위를 사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배출하자는 요리법으로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던 강창건 셰프. ‘2006 세계 슬로푸드 대회’에서는 ‘세계 100인의 셰프’에 선정되었고, 2019년 향토음식장인에서 생선회 다금바리 부문 1호에 올랐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소상공인기능경진대회에서 소상공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현재는 아들이 뒤를 이어 다금바리 장인의 길을 가고 있다. ‘진미명가’는 최근 ‘백년가게’ 인증을 받았으며, 개업 4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도 열었다. 한 점에도 생명의 귀함을 느끼는 마음이 널리 퍼지길 바라며 제주에 가는 회원들은 ‘진미명가’를 꼭 방문해보자.



박명선갤러리 망치기전시에 모인 슬로푸드 회원들



박명선 화가의 적정기술로 완성된 작품

## 06 파주, ‘박명선갤러리’에서 열린 예술파티

화가인 박명선 회원은 4월 14일 자신의 갤러리에 슬로푸드 회원들을 초대해 ‘예술파티’를 열었다. 생활을 예술 모티브로 삼아 작품활동을 하는 박명선 화가의 이번 파티는 ‘망치기전시’라는 독특한 이름을 내세웠다. 미완성이어도 좋고 하다가 망친 것도 좋으니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자유롭게 작품을 나누고 교류하자는 의미라고. 그래서인지 아나바다 장터와 작품 경매, 음악회 모두 틀에 얽매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쓰레기 없는 장터, 내가 먹을 것은 내가 가져오는 파티였지만 파주지부에서 준비한 보리완자, 썩전, 막걸리, 잡채, 꽃차, 떡 등 먹을거리가 풍부했다.



슬로푸드 수원 회원들



인삼정과 만들기 워크숍

## 07 수원지부, 보양식을 주제로 한 릴레이 캠페인

4월 16일 수원지부는 유영상 회원이 대표인 광고산황제능원에서 ‘몸에 이로운 보양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릴레이 캠페인을 열었다. 인삼 농사를 짓는 전병덕 회원과 부인 이순정 회원이 하는 인삼 농사 이야기, 인삼정과와 양갱 만들기 강의를 들었다. 식사는 인삼이 들어간 백숙과 인삼 버들 쌀국수였다. 기후 위기 대응 전문가로도 활동 중인 유성경 수원지부장은 이날 기후 위기 시대의 조리 방법과 식사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들은 판매하고 싶은 물품을 가져와 진열 판매, 시식 및 나눔을 했다. 이날 판매금의 10%는 수원지부 후원금으로 적립되었다.

## 08 여주·이천 예비지부 모임

4월 17일 여주농촌문화센터 2층에서 모임을 진행했다. 경기민요 공연 감상과 민요 한 소절 배우기, 슬로푸드 맛의방주 이해하기, 열갈이김치를 담그고 장흥고대미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실생활에서 슬로푸드운동을 즐겁게 실천할 방법을 모색했다. ●



열갈이김치 워크숍



지부모임에 참석한 회원들

# <2024 슬로푸드 테라마드레> 프리뷰 두 번째

아는 만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다. 여행을 갈 때 사전 정보를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슬로푸드 테라마드레 여정에서 만나는 두 번째 장소로 알프스 기운을 담은 명쾌한 화이트 와인 생산지 트란토 와이너리를 소개한다.

정리 고지현(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홍보팀장) 사진 트란티노관광청 제공



2024년 슬로푸드 테라마드레 돌로미티 여정에서 만나는 두 번째 장소는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트란토(트란티노 지역의 주도)이다. 트란토에 발을 들여놓을 즈음에는 한여름의 열기는 누그러졌어도 햇살은 여전히 따가울 테다. 그럴 때는 시원한 와인이 좋다. 서늘한 와인 저장고에서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상상만으로도 선선한 바람이 몸에 와닿는 느낌이다. 돌로미티 알프스 빙벽의 냉기를 담은 트레티노(Trentino)주의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상상은 현실이 된다.

트란토(Trento DOC) 와인이 수많은 이탈리아 화이트 와인 중에서 손꼽는 이유는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알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이탈리아 와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서 생산된다. 빙하가 할퀴고 간 흔적이 뚜렷한 1500m에 달하는 돌로마이트(석회암으로 된 백운석) 암벽 밑에서 자라는 포도는 알프스 북부의 서늘한 기후에서나 자랄 수 있는 품종이다. 와인은 그곳의 토양과 기후를 닮는다고 하는데 트란토 주민들의 냉정하고 똑 부러진 성격을 닮아서 와인 역시 그 맛이 깔끔하고 정확하다고 한다.

트란토 와인을 얘기할 때 아디제(Adige)강을 빼놓을 수 없다. 아디제강은 트란티노주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다가 베로나 근교에서 동쪽으로 흐름을 바꿔 아드리아해로 흘러간다. 총 410km에 달하는 아디제강은 이탈리아에서는 두 번째로 긴 강이다. 강 주변은 강이 싹고 온 큰 자갈과 모래 퇴적물이 쌓인 충적평원이다. 아디제강의 위쪽은 발레 델 아디제(Valle dell'Adige), 아래쪽



은 발라가리나(Vallagarina)로 구분하며 트란티노주의 주요 와인 생산 지역이다. 두 지역 모두 계곡을 뜻하는 발(Val)이란 단어가 들어 있는 것은 트란티노의 와인이 산악지형에서 생산됨을 말한다. 이곳에서 대대로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포도주를 시음할 수 있으니 미리 포도주에 대해 궁금한 것을 많이 생각하고 방문하면 더욱 좋다.●



# ☀ 슬로푸드회원특가

**달팽이 매거진  
연 구독 할인**

연 구독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20% 할인되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푸드회원만 특별히!!  
문의전화는 협회로  
입금과 배송은 최영미 회원

02-737-1665

슬로푸드 회원이되면 멋진세상이..

## 슬로푸드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의 자랑스런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원님들이 내시는 소중한 후원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소멸위기의 종자 및 음식 유산을 지키는 맛의방주 발굴 및 등재
- 슬로푸드 운동의 경험을 나누는 "어머니인 땅" 워크숍
- 슬로푸드 운동 확산을 위한 국제슬로푸드축제 참가 및 개최
- 유전자조작식재료(GMO) 반대
- 지속가능한 어업을 지키는 슬로피시 운동
- 조리로 농업과 건강, 식문화를 지키는 "조리하는대한민국" 캠페인
- 콩 유전자원 보전과 자급 실현을 위한 "콩의나라대한민국" 캠페인
- 공장식 축산 육제품 대신, 적게 먹되 제대로 된 고기를 먹자는 "슬로미트" 운동
- 우리 차의 소중함을 느끼고 차생산자를 돕는 "차마시는 사회" 캠페인
- 지역의 음식 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는 "슬로푸드집밥리더" 양성
- 음식 독서, 공동부엌, 토종씨앗 보전, 생산자 격려 등 지역별 지부 및 커뮤니티 육성

슬로푸드 회원이 되시면 위와 같은 일을 지원하는 외에도 160개국의 슬로푸드 회원들과의 연대 안에서 지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슬로푸드 공동생산자가 되어 먹을거리의 기본인 농업, 땅, 가족농, 종자를 지킵니다. 또한 슬로푸드 지부나 커뮤니티와 함께 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벤트도 열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2024년 3월~2024년 4월 슬로푸드 후원자 (정기회비납부자)명단

(사)가배울(대표김정민)/전남강진, 푸른콩방주(대표김민수)/제주, (주)도담(대표이원영/슬로푸드친구들)/충북청주, (주)뜰과숲(대표권춘희) 서울강남, (주)물과산소(대표우병렬)경기김포, (주)쁘리마쥬(대표오진수/슬로푸드친구들)/경기안양, (주)생태미식연구소(대표남윤미)/경기여주, (주)선농생활(대표신동수)경기양평, (주)제주마미(대표김정옥)/제주, (주)초정(대표정인숙)/전남곡성, John Kenneth Lee/전남장흥, NIINUMA CHIKA/서울마포, 강경갑/부산광역시, 강경석/제주도, 강경아/서울용산, 강경우/전남고흥, 강구열/경북예천, 강능규/경기화성, 강대욱/경남거창, 강라희/광주광역시, 강미경/충남논산, 강민규/울산광역시, 강범식/경기안양, 강병규/전북남원, 강석찬/경기화성, 강성일/제주, 강순아/서울서초, 강순임/전남담양, 강양숙/제주, 강영수/대구광역시, 강영주/충남서천, 강은미/전북김제, 강은주/경기양주, 강장원/경기안양, 강주남/제주, 강지윤/전북고창, 강창건/제주, 강혜련/충남예산, 행복빛는떡시루(대표강혜진)/전북군산, 강화경/전남담양, 강희숙/경기파주, 강희진/충남예산, 경소정/경기남양주, 경지현/서울강남, 고금희/경기화성, 고미애/전북완주, 고민주/충북청주, 고성광/경기고양,

고승희/서울마포, 고양찬우물농장/경기고양, 고영/경기화성, 고영희/제주, 고영희/제주, 고옥희/경기 파주, 고용준/제주, 고운/서울마포, 고은정/제주, 고은정/전북남원, 고인정/경기평택, 고재섭/경북영 양, 고점석/전북부안, 고지현/서울용산, 고현미/경기남양주, 고현준/제주, 고화순/경기남양주, 공항 숙/전남광양, 곽경자/전남담양, 곽미경/전남담양, 곽민선/서울강남, 곽선미/서울용산, 곽순자/전남담 양, 곽여경/전남여수, 곽주홍/경남김해, 곽찬열/경기고양, 구본일/경기파주, 구영자/광주광역시, 구 자운/충남예산, 국영주/강원홍천, 권미연/경기부천, 권성원/서울은평, 권연숙/경북울릉, 권오경/경기 양평, 권오열/세종시, 권용덕/경기고양, 권용인/강원홍천, 권윤희/서울종로, 권은민/서울종로, 권은 숙/경북울릉, 권인옥/서울강북, 권재영/미지정, 권찬중/경북울릉, 권태훈/대전광역시, 권향숙/경기파 주, 권혁현/서울서초, 권혜경/충남아산, 권화조/경북울릉, 권효숙/서울서초, 규반(대표)/서울 중구, 금경연/경기화성, 기여은/서울중랑, 기중서/제주, 김갑수/전북고창, 김경란/서울도봉, 김경숙/전남장 흥, 김경숙/서울은평, 김경아/경기부천, 김경자/전남담양, 김경진/경기여주, 김경환/경기고양, 김경 희/서울성동, 김경희/충남예산, 김경희/서울성북, 김경희/경기의정부, 김계향/전남담양, 김관숙/전북 완주, 김관영/전북군산, 김관호/충남서산, 김광욱/광주광역시, 김광태/경북고성, 김귀임/광주광역시, 김금옥/경기남양주, 김기라/전남광주, 김기열/서울영등포, 김나경/부산, 김나영/서울중랑, 김나현/경 남하동, 김다솔/경기파주, 김다애/전남여수, 김대수/서울성북, 김덕일/경기평택, 김도원/제주, 김도 윤/경북울릉, 김동관/전남고흥, 김동숙/경기파주, 김동우/경기오산, 김동자/경북울릉, 김동환/충남논 산, 김명미/서울관악, 김명숙/경북울릉, 김명숙/경기용인, 김명애/경북울릉, 김명옥/전북전주, 김명 진/전남여수, 김명희/서울노원,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충남홍성, 김명희/경기양주, 김미경/광주광 역시, 김미나/부산광역시, 김미득/경남창원, 김미라/전남순천, 김미라/전남완도, 김미숙/서울마포, 김미숙/서울강서, 김미연/충남청양, 김미영/경기파주, 김미진/ 광주광역시, 김미희/경남하동, 김미희 /전남여수, 김민영/경기남양주, 김민정/광주광역시, 김민호/경기광주, 김민희/제주시, 김병기/서울서 초, 김병수/경북울릉, 김보람/서울노원, 김복남/경북울진, 김복희/광주광역시, 김부미/서울서초, 김 상권/경기화성, 김상기/경기파주, 김상범/전남무안, 김상희/경기파주, 김생기/서울구로, 김서원/경기 파주, 김석순/경기고양, 김선관/전남여수, 김선란/전남순천, 김선영/충남예산, 김선유/서울동대문, 김선화/전남담양, 김선화/경북울릉, 김선희/전남무안, 김선희/부산광역시, 김성은/전북부안, 김성일/ 충북청주, 김성현/전남목포, 김성훈/경기평택, 김성희/서울서초, 김소연/경기평택, 김소행/전북고창, 김송희/전북고창, 김수남/전북고창, 김수미/경남고성, 김수미/경기의정부, 김수영/경기수원, 김수진/ 서울구로, 김수하/경남밀양, 김수현/경기화성, 김숙정/전북전주, 김숙희/전남담양, 김순주/경북울릉, 김순향/전남여수, 김순화/경북울릉, 김승준/서울용산, 김승환/경북울릉, 김아윤/슬로청춘, 김여진/전 북전주, 김연주/충남서산, 김연태/서울관악, 김영경/경기여주, 김영금/경기파주, 김영남/경북울릉, 김영란/충북제천, 김영란/전남신안, 김영림/서울관악, 김영림/서울동작, 김영미/서울성북, 김영미/전 북고창, 김영숙/충남예산, 김영숙/전북고창, 김영순/경기파주, 김영식/세종, 김영신/전남완도, 김영 애/경기양주, 김영옥/전남화순, 김영주/서울강남, 김영택/전북익산, 김영향/서울구로, 김영희/전남담 양, 김예성/서울강남, 김옥분/충남홍성, 김옥분/경북울릉, 김옥선/서울송파, 김옥선/경북울릉, 김옥

연/경남창원, 김옥용/경북울릉, 김완섭/경북안동, 김용수/전북고창, 김원봉/경기여주, 김원일/서울종로, 김원형/경기남양주, 김유나/서울용산, 김유신/서울은평, 김윤미/경기남양주, 김윤정/서울성북, 김윤주/경기양평, 김은경/전북군산, 김은규/전남강진, 김은성/전북고창, 김은숙/서울중구, 김은숙/경기양주, 김은아/경북울릉, 김은영/경기의정부, 김은주/전남여수, 김은하(김규량)/광주광역시, 김은혜/경기양평, 김익현/경기의정부, 김인수/전남곡성, 김인숙/서울서초, 김인순/전북전주, 김인자/경기파주, 김자현/서울관악, 김재광/경기고양, 김정규/경기김포, 김정민/경기오산, 김정수/서울동작, 김정수/경기파주, 김정아/제주, 김정애/경북울릉, 김정애/부산해운대, 김정열/제주, 김정옥/경북울릉, 김정화/경기의정부, 김정희/전남여수, 김종덕/서울동작, 김종애/충북충주, 김종철/제주, 김종화/강원철원, 김주덕/제주, 김주희/서울동대문, 김준/광주광역시, 김지영/경기안산, 김진만/대전광역시, 김진수/전남여수, 김진옥/광주광역시, 김진옥/경기화성, 김진주/전북전주, 김진태/전남고흥, 김찬주/경기시흥, 김창균/전북정읍, 김채옥/서울동대문, 김채윤/경북예천, 김채윤/전북전주, 김추자/전남여수, 김춘교/경기부천, 김춘성/경기하남, 김충구/충남천안, 김태분/경북울릉, 김태용/전북전주, 김태철/경기성남, 김태훈/전북전주, 김하경/서울동작, 김하나/전남강진, 김행근/제주, 김현린/경북울릉, 김현곤/전북진안, 김현규/전북군산, 김현석/서울시중구, 김현숙/경기이천, 김현숙/경기김포, 김현숙/경기의정부, 김현순/서울은평, 김현영/전남장성, 김현옥/경북울릉, 김현옥/경기부천, 김현희/전남여수, 김형순/경기고양, 김형애/충남예산, 김혜경/전북남원, 김혜란/서울종로, 김혜숙/강원강릉, 김흥기/충남예산, 김희명/전북군산, 김희섭/경기하남, 김희순/전북군산(정담순대), 김희영/ 김희재/부산광역시, 나경희/전북고창, 나상분/인천강화, 나예주발효/경남거창, 나혜리/경기남양주, 남은주/경기안성, 남정희/경북울릉, 남창우/전남순천, 남한권/경북울릉, 노국환/경기양평, 노명희/경북상주, 노미경/경기여주, 노민영/서울종로, 노영도/경남창원, 농업회사법인 농부생각(대표김동완)/충남아산, 느린세상영농조합법인(대표김갑남)/경북상주, 다정농원(대표심복남)/경북성주, 도덕현/전북고창, 라연화/경기고양, 라호채/전북무주, 류경옥/광주광역시, 류명주/광주광역시, 류정기/경기고양, 류춘자/경기고양, 르도혜/부산광역시, 마경희/경북울릉, 마행덕/충북청주, 문명숙/경북울릉, 문서정/경기수원, 문성수/경기파주, 문성희/경북청도, 문순자/경북울릉, 문오권/광주광역시, 문유숙/서울은평, 문재형/경기하남, 문주현/경남창원, 문지영/서울은평, 민경윤/경기용인, 민진옥/서울동대문, 바른식습관연구소(대표김아람)/경기광명, 박경숙/서울종로, 박경아/경기남양주, 박경하/충남예산, 박경희/경기파주, 박광철/전북전주, 박기호/경북울릉, 박덕수/경북울릉, 박도희(박소연)/경기양평, 박동근/서울양천, 박동금/전북완주, 박동우/서울마포, 박래훈/경기화성, 박만희/광주광역시, 박명선/경기파주, 박미경/경남함양, 박미현/경기고양, 박민근/서울, 박민숙/광주광역시, 박민제/경기양평, 박상미/서울종로, 박상일/전남해남, 박서필/캄보디아, 박석희/서울동작, 박선흠/전남여수, 박성미/전남여수, 박성숙/독일, 박성자/경기평택, 박성춘/전남신안, 박성혜/경기광주, 박세정/서울양천, 박소현/경기성남, 박수영/경기고양, 박수진/전북부안, 박순덕/경북울릉, 박애경/경기양평, 박연주/경기파주, 박영미/서울종로, 박영애/강원홍천, 박영재/경기수원, 박영희/제주, 박용수/경북울릉, 박은경/경기평택, 박이현/전남고흥, 박인숙/전남담양, 박일두/전북전주, 박재원/서울강남, 박재현/미지정, 박정실/서울용산, 박정애

/경북울릉, 박정욱/경기안양, 박정희/서울은평, 박종숙/경기이천, 박종일/서울강서, 박진숙/경기고양, 박진희/전북장수, 박찬영/서울관악, 박창규/전남담양, 박철민/경기용인, 박춘희/전남여수, 박태식/전남담양, 박한주/경기양주, 박현진/서울송파, 박혜숙/전남순천, 박홍균/전남신안, 박희옥/서울종로, 반기민/충북청주, 배경선/경기안양, 배경연/경기파주, 배덕희/전북진안, 배연하/전남고흥, 배영혜/경기화성, 배옥례/광주광역시, 배인숙/경기성남, 배재희/전남영암, 배정숙/충남논산, 백관실/경남진주, 백광빈/경기평택, 백수환/광주광역시, 백혜숙/서울송파, 변경숙/서울송파, 변 산노을/경기양평, 변옥분/경북울릉, 변은숙/제주, 변인화/서울영등포, 봉밀가평양냉면/서울강남, 부명미/경기파주, 부정숙/제주, 사랑의 손힐링리더스/광주광역시, 서동현/경기고양, 서미향/서울관악, 서석림/경기양주, 서은경/충남예산, 서종효/대구광역시, 서주희/전북군산, 서해용/충북청주, 서형숙/서울종로, 서희주/경기파주, 선재스님/경기용인, 선정우/경기성남, 성길현/경기고양, 성명순/경기수원, 성미선/경기남양주, 성선희/서울강남, 성세아/경기사흥, 성용호/서울서초, 성점숙/전남함평, 성정민/경기성남, 성현주/경기옥천, 소인경/경남통영, 소혜순/경기남양주, 손금숙/서울광진, 손덕식/전북정읍, 손영숙/강원철원, 손영옥/서울서초, 손영자/전남화순, 손용원/경북울진, 손은아/전남담양, 손정숙/경북울릉, 손정희/충남홍성, 손철수/서울성동, 손혜연/서울송파, 손화자/경북울릉, 송관용/서울서초, 송기희/광주광역시, 송동흙/서울서대문, 송명순/전남담양, 송미경/경북울릉, 송미경/경기성남, 송미령/전북전주, 송미화/경북울릉, 송서윤/대전광역시, 송수연/경북안동, 송영희/경기양평, 송장혁/전남담양, 송재향/전남여수, 송정선/경기파주, 송정숙/경기파주, 송정은/서울강서, 송주희/경기광주, 송지은/경기양주, 송진선/부산직할시, 송철식/경남창원, 송태경/전북진안, 송혜민/경기남양주, 시드컴퍼니언니네(대표박정록)/경북영주, 시미란/경기광주, 신경남/전남고흥, 신동수/경기양평, 신동집/인천강화, 신동환/서울영등포, 신미경/전남여수 신미경/경기양평, 신미정/전북순창, 신상천/충남서천, 신서하/서울강남, 신소영/서울관악, 신수경/서울동대문, 신영규/경남김해, 신용조/충남홍성, 신유리/서울강북, 신은희/경북대구, 신일현/경기포천, 신종암/전남여수, 신재숙/전북고창, 신진경/전북군산, 신현숙/경기고양, 신형숙/전남담양, 신형식/경기남양주, 신혜경/경기부천, 신혜원/서울 용산, 신효림/서울동작, 심상옥/서울종로, 심온/경기구리, 심재경/전남완도, 심찬/서울강남, 안기영/경기양주, 안덕준/서울은평, 안란/광주광역시, 안병권/전북김제, 안성민/전북고창, 안세희/경기남양주, 안수복/경북포항, 안승문/경기고양, 안승화/서울강남, 안완배/경기양평, 안완식/경기수원, 안윤자/광주광역시, 안일국/서울은평, 안재명/전남담양, 안정순/경기고양, 안정자/경남창원, 안종욱/경북울릉, 안종운/서울서초, 안창호/서울강북, 안현숙/ 경기파주, 안혜경/전남순천, 양말년/경북울릉, 양문실/제주, 양미순/경북예천, 양성오/경남창원, 양소영/전남여수, 양옥경/전북전주, 양용진/제주, 양이선/미지정, 양인승/경기남양주, 양인자/경기광명, 양정미/경북울릉, 양정철/제주, 양종천/강원춘천, 양향숙/전북완주, 양혜숙/제주, 양희은/경기의정부, 양희정/서울송파, 어프로젝트(대표천재박)/경기파주, 언리미ટે이블(대표김해영)/서울강서, 엄지선/미지정, 여수미미협동조합/전남여수, 여애숙/경북울릉, 오동엽/경북청도, 오미경/전북전주, 오석환/전북익산, 오성표/전남고흥, 오승희/전북완주, 오연숙/제주, 오영상/전남여수, 오용균/서울송파, 오용준/서울송파, 오원희/인천강화, 오유경/광주광역시, 오인숙/제주, 오정선/경기광

주, 오정하/전남담양, 오탈숙/경북울릉, 올바른편식/광주광역시, 우석영/경기고양, 우선화/경기파주, 우영선/미지정, 우태영/경남거창, 우호창/경기가평, 원승현/강원영월, 유경/전북김제, 유경숙/서울노원, 유경순/서울강북, 유계숙/광주광역시, 유귀숙/서울동작, 유기상/전북고창, 유미호/서울구로, 유선금/서울서대문구, 유성경/경기수원, 유성훈/전북부안, 유수현(카펜트리)슬로프렌즈/경기남양주, 유승현/경기 남양주, 유시현/경기남양주, 유신정/서울서초, 유영아/전남고흥, 유은의/경기김포, 유은숙/전남담양, 유일순/충남서산, 유일화/경북울릉, 유재성/강원영월, 유종철/경기수원, 유창우(카펜트리)슬로프렌즈/남양주화도, 유채진/경기여주, 유춘영/전남담양, 유현주/서울서초, 유혜선/충북청주, 유희림/프랑스, 유황순/경기양주, 육주희/서울관악, 윤가비채/광주광역시, 윤경림/서울관악, 윤경숙/충남서산, 윤광미/경기고양, 윤광희/경기광명, 윤대근/전남나주, 윤대식/전남강진, 윤매숙/경북울릉, 윤병구/전남함평, 윤상미/서울서대문, 윤석진/경기포천, 윤성호/경남창원, 윤성희/충북청주, 윤신애/서울은평, 윤아영(레스토랑오와이)/서울강남, 윤영실레시피/경기파주, 윤영주/경북울릉, 윤영철/경북울릉, 윤유경/서울동작, 윤일/전북전주, 윤재영/서울강남, 윤정욱/충남논산, 윤종민/전남여수, 윤하영/대전광역시, 이강백/경기고양, 이강삼/경남하동, 이강식/경기화성, 이경숙/경기양주, 이경숙/경기파주, 이경애/경북울릉, 이경우/경기양평, 이경이/경기양평, 이경자/충남홍성, 이경태/경북울릉, 이경희/경북울릉, 이광빈/제주, 이광영/경기파주, 이광진/경기용인, 이광진(일산애)/경기고양, 이귀임/전남영광, 이귀조/경북울릉, 이규희/경기오산, 이근왕/경남하동, 이근혜/서울종로, 이금선/경북울릉, 이기동/서울송파, 이기호/전북부안, 이길순/광주광역시, 이나금/경기파주, 이남숙/경기파주, 이다감/경기포천, 이대건/전북고창, 이덕주/경남하동, 이덕준/경북울릉, 이도경/경기파주, 이동건/경기수원, 이동선/경기용인, 이동일/경기용인, 이두열/경기김포, 이명/서울강남, 이명숙/대전광역시, 이명숙/경북울릉, 이명주/경기김포, 이명희/서울용산, 이문봉/경기안양, 이미덕/강원횡성, 이미우/경기양주, 이미정/전북군산, 이민/제주, 이민영/경기양주, 이민우/충남보령, 이민일/경기파주, 이민형/경기고양, 이보은/서울구로, 이보향/서울도봉, 이보희/경기과천, 이봉자/경북울릉, 이부경/경기남양주, 이빈파/서울성북, 이상관/경기광주, 이상배/경기화성, 이상원/경기남양주, 이상익/서울종로, 이상행/서울용산, 이상헌/경북울릉, 이상훈/경기평택, 이상희/제주, 이상희/경남통영, 이석영/경기수원, 이선심/광주광역시, 이선진/인천광역시, 이성철/부산광역시, 이소연/경기수원, 이수경/서울강동, 이수연/경기용인, 이수연/경기성남, 이수진/서울성북, 이숙희/경남창원, 이순규/경기남양주, 이순득/경기용인, 이순애/경북울릉, 이순원/서울서초, 이순익/경기평택, 이순자/경북울릉, 이승길/전남완도, 이승숙/충남논산, 이승창/전남완도, 이승현/서울종로, 이승희/전남해남, 이승희/경기평택, 이애경/경기파주, 이연례/전남순천, 이연수/서울송파, 이영성/서울종로, 이영숙/충남예산, 이영숙/충북청주, 이영숙/경북울릉, 이영실/경북울릉, 이영아/전남담양, 이영희/경기수원, 이육순/서울양천, 이육희/경북경주, 이용우/인천광역시, 이용원/경기여주, 이용이/전북군산, 이우숙/경기부천, 이원로/경기성남, 이원영/경기하남, 이원자/경기여주, 이윤선/제주, 이윤숙/광주광역시, 이은미/대구광역시, 이은실/경북포항, 이은혜/충남공주, 이음/대구광역시, 이자영/경기양평, 이재덕/서울강남, 이재선/경기양주, 이재영/충남계룡, 이재용/경기화성, 이재현/충북보은, 이재훈/대구광역시, 이정숙/충남예산, 이정숙/전북정읍,

이정숙/대전광역시, 이정아/제주, 이정아/경남하동, 이정아/광주광역시, 이정아/전북김제, 이정원/전남담양, 이정자/서울강북, 이정직/미지정, 이정호/강원원주, 이정화/전남담양, 이종진/전북전주, 이주연/서울용산, 이주해/전북임실, 이준섭/제주, 이준호/전북고창, 이지순/경기양평, 이지영/제주, 이지현/경기남양주, 이지형/경북경산, 이진숙/경기파주, 이진영/전북전주, 이진오/경북울릉, 이진희/서울동작, 이창희/경기양평, 이춘자/경북울릉, 이현/경북경산, 이현숙/충북청주, 이현종/경기고양, 이해정/경북포항, 이호진/경기김포, 이희운/전남장흥, 인경숙/광주광역시, 임명검/충남보령, 임미선/경기양평, 임상채/경기파주, 임선자/경북울릉, 임시현/경남창원, 임연숙/전남장흥, 임영수/경기고양, 임영혜/충북영동, 임인환/경기양평, 임장욱/전북정읍, 임정남/전남여수, 임창덕/경기구리, 임태인/광주광역시, 임헌문/경북봉화, 임현/경기과천, 임현주/전남완도, 임현진/서울영등포, 임희연/광주광역시, 장경순/서울중구, 장경식/서울마포, 장내순/전남장흥, 장대석/경기성남, 장명숙(신순규)/실미원, 장명아/광주광역시, 장미향/경기포천, 장수찬/경기화성, 장승영/경기광주, 장승희/경기시흥, 장영기/미지정, 장영숙/경기파주, 장영주/서울은평, 장영춘/서울성북, 장유경/서울강남, 장유성/부산광역시, 장은숙/경남양산, 장주연/경기고양, 장중연/전남목포, 장지영/전남무안, 장진호/서울마포, 장하늬/서울마포, 장한/인천강화, 장현남/서울동대문, 장현순/경기파주, 장현예/경기남양주, 전계운/전북고창, 전미옥/경기양주, 전민석/경기남양주, 전병덕/경기수원, 전병성/경기파주, 전성희/경북안동, 전송자/경기파주, 전옥자/경기수원, 전은순/경기파주, 전인옥/경북구미, 전효원/대구광역시, 정갑순/경기광명, 정경희/경기이천, 정관스님/전남장성, 정규화/경남진주, 정금자/경기파주, 정금철/전북부안, 정남숙/전남담양, 정대휘/경북울릉, 정명성/전북정읍, 정미선/서울서대문, 정미영/경기파주, 정병남/전남고흥, 정병수/광주광역시, 정봉희/서울용산, 정상신/이탈리아, 정상택/광주광역시, 정송임/전남장흥, 정순덕/경기파주, 정순옥/경기양주, 정시현/경기용인, 정연숙/경기수원, 정연주/경기양평, 정영숙/경기양평, 정영호/전남무안, 정용호/경북울릉, 정용희/경기고양, 정운교/충북음성, 정은상/경남창원, 정은정/전북부안, 정은하/경기남양주, 정일심/경기양주, 정점숙/경기남양주, 정정기/경기파주, 정정연/경북울릉, 정정하/서울종로, 정제민/충남예산, 정종숙(하영)/전북부안, 정지은/서울은평, 정진순/전북고창, 정진영/제주, 정진화/서울은평, 정태남/전남담양, 정해경/충남예산, 정혁훈/서울송파, 정현자/전남여수, 정현주/전남여수, 정현진/경북울진, 정현창/경기양평, 정혜경/경기고양, 정혜윤/인천광역시, 정호진(자르디미농)/경북구미, 정효화/전남화순, 정희정/전남무안, 조경신/전북전주, 조남희/경기성남, 조본호/경남창원, 조순영/전남광양, 조연원/충남예산, 조영례/전남신안, 조영현/전남장흥, 조완석/경기용인, 조용란/경기파주, 조원구/경북울릉, 조원실/경기고양, 조윤심/전북익산, 조은진/전북정읍, 조은희/경북경주, 조이스/경북울릉, 조정환/경기화성, 조중기/강원철원, 조창범/제주, 조철/전북진안, 조태경/서울종로, 조향순/전남순천, 조혜원/서울서대문, 조희경/경기파주, 주권기/광주광역시, 주귀연/인천광역시, 주대중/전북군산, 주미란/서울도봉, (주)서스테이블/서울동작, 주연섭/경북문경, 주영하/경기성남, 주은옥/전남여수, 주형로/충안홍성, 주형미/경기부천, 주희진/광주광역시, 지윤진(피코서울)/서울사직, 지은주/서울서초, 진미령/경남창원, 진이린/경기고양, 진인희/미지정, 진태민/제주, 진희승/경기고양, 찐누룩발효공방/서울강서, 차명옥/전북전주, 차미경/광주광역시.

차정단/전북진안, 채점석/제주, 채지애/제주, 천정자/전남장흥, 천지연/전남순천, 천호균/경기파주, 최경남/전북부안, 최근태/충북옥천, 최낙전/경기양평, 최돈익/서울강남, 최득수/충북단양, 최말희/경북울릉, 최미자/서울노원, 최삼남/전북부안, 최선미/광주광역시, 최성희/서울은평, 최송아/경기고양, 최숙자/전남고흥, 최승철/경기안양, 최식림/경남산청, 최양숙/경기파주, 최영미/서울성북, 최영수/경기이천, 최영수/전남목포, 최영숙/경남창원, 최영숙/경북울릉, 최용범/전남구례, 최윤경/서울중랑, 최윤희/서울영등포, 최은숙/경기김포, 최은영/경기고양, 최장희/대전광역시, 최재덕/경기여주, 최정분/경기파주, 최정희/경기양주, 최종현/경기수원, 최종호/경기양평, 최준표/경기수원, 최준호/서울용산, 최지영/서울강남, 최철/경기연천, 최춘경/전북전주, 최춘식/충북청원, 최춘화/전남담양, 최학순/충북청주, 최후경/전남여수, 최희철/경기수원, 추소정/경기수원, 추승민/서울관악, 하늘농가/슬로푸드친구들(고화순)/경기남양주, 하완기/경남거창, 하진석/경기고양, 한갑수/서울노원한귀숙/경북울릉, 한기남/전남구례, 한대수/경남거창, 한도연/전남담양, 한명구/서울중구, 한복려/서울종로, 한사랑마을교육공동체/경기포천, 한상준/경북예천, 한선이/전남담양, 한성천/경남하동, 한소희/전남여수, 한얼영농조합법인/슬로푸드친구들(대표김원봉)/경기여주, 한영수/경기양평, 한외자/경북울릉, 한우석/슬로청춘, 한은희/경기남양주, 한정심/전북군산, 한주희/경기파주, 한태림/전남순천, 한해광/전남여수, 허운/경남산청, 허경희/서울강남, 허기순/경기가평, 허니아씨/서울강북, 허선혜/허순연/경북울릉, 허정희/경기파주, 허태원/전남여수, 허향순/제주, 허혜윤/경기양주, 허훈/경기포천, 현금지/경기남양주, 현길아/제주, 현은주/경기남양주, 현종영/서울강남, 현혜인/경기수원, 홍경량/제주, 홍경옥/경기양주, 홍광표/경기화성, 홍미라/경기하남, 홍선희/서울성북, 홍순미/서울은평, 현인농원(대표홍승갑)/경기파주, 홍양현/전남나주, 홍여신/전남강진, 홍은화/경기수원, 홍정아/부산광역시, 홍천기/서울영등포, 홍철표/경기양주, 홍혜영/대전광역시, 황기순/전남영암, 황보순자/경기여주, 황선진/전북남원, 황종환/전남나주, 황주연/서울관악, 황진웅/충남공주, 황태연/전남담양, 황현화/전북군산, 황효숙/경북울릉, 효덕목장(대표이선애)/충남천안, (이상1,081명)